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 피해 잇달아...기업들 '비상'

삼성전자, 20인 이상 회의금지·출장자제...사내 코로나 검사소 확대

LG전자, 외부 방문객 출입 제한, 출장·대면회의·집합교육·금지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에 기업들은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는 한편, 20인 이상이 모이는 회의를 금지하고 출장을 자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캠퍼스 R&D(연구개발)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건물의 해당 층을 폐쇄했다.

LG전자 가산R&D캠퍼스 어플라이언스 연구소 직원도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사전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마쳤다.

LG전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역 조치 후 이번 주말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직원과 같은 층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재택근무하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일부 밀접 접촉자들은 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2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6일엔 LG전자 서울역 빌딩에 근무하는 한국영업본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1489명이다. 2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0명이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근무하는 포스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스코에 따르면, 직원 1명이 지난 18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회사에 알리고 전남 광양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9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14일부터 휴가 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이에 포스코는 해당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에게 알리고 재택근무 조치했으며 포스코센터의 방역도 시행했다. 전날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 소재 LG CNS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연휴기간(15~17일) 이후 재택근무 중이었다. LG CNS는 지난 18일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LG CNS는 코로나19 대응 메뉴얼에 따라 이날 본사 근무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 19일 오후 본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 청계천로에 있는 본사 사무실 일부를 임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같은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18~19일 자체 시설 방역을 마쳤으며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원 검사 등 추가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쿠광 인천 4 물류센터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

쿠광은 인천 4 물류센터의 환경미화 담당하는 외부업체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센터를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긴장한 기업들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먼저 이날부터 20명 이상 모이는 회의를 아예 금지했고 회의 테이블 1.5m이상 거리 두기를 필수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회식도 금지했다. 국내 출장도 꼭 필요한 출장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집합 교육은 30명 이하만 운영하고, 사외 집합 교육은 중단하기로 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퇴근 버스의 경우 전체 좌석의 50%만 탈 수 있도록 버스를 추가로 배치했다. 오는 24일부터는 모바일 문진을 주 1회 시행에서 매일 시행으로 전환한다. 앱을 이용한 문진도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수원 사업장 사내 출장 검사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소는 인근 사업장 임직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미와 광주 사업장도 검사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화성 사업장에 코로나 검사소를 열어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LG전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맞춰 대응지침을 사내에 공유했다.

먼저 모든 사업장 및 건물 대상 외부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사업장 간 출장 및 대면회의·집합교육·단체 회식 등 금지, 사외 다중 이용시설 방문 금지 등을 실시한다. 재택근무도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해외 출장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임신 중인 직원 등 모성보호대상자,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 만성·기저 질환이 있는 직원들도 2주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8일까지 각 조직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LG화학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30일까지 '순환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김동희본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모두 상승...“매수세 강세”

“안정화 더디게 진행 중”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소폭 완화됐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뜨거웠던 세종시는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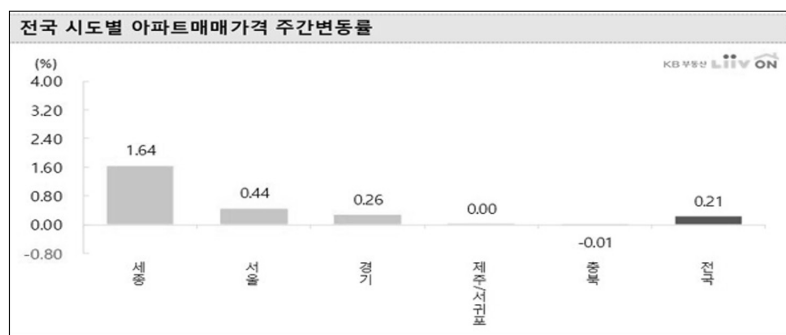
2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4% 올랐다. 지난주 0.53%에 비해 상승폭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번 주에도 모든 지역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나고 있다.

특히 노원구(0.81%), 은평구(0.73%), 금천구(0.63%), 성북구(0.60%), 성동구(0.58%)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경기는 지난주 0.30%보다 소폭 내려간 0.2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명(0.67%), 광주(0.54%), 수원 영통구(0.52%), 성남 분당구(0.48%), 남양주(0.44%)가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9%)만 하락했다.

인천(0.07%)은 부평구(0.13%), 서구(0.12%), 남동구(0.07%), 계양구(0.07%), 연수구(0.05%)가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2%)는 대전(0.25%), 대구(0.14%), 부산(0.12%), 울산(0.07%), 광주(0.01%) 모두 올



랐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1%)도 상승했다. 세종(1.64%), 충남(0.10%), 경북(0.05%), 강원(0.05%), 전남(0.04%), 경남(0.03%), 전북(0.02%)이 올랐고 충북(-0.01%)만 하락했다.

특히 세종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인해 지난주 3.06%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누그러진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0.38%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41%)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대부분 지역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강서구(0.80%), 송파구(0.78%), 은평구(0.66%), 강북구(0.65%), 노원구(0.50%)가 많이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6% 올랐고, 인천(0.05%)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0.87%), 광주(0.66%), 과천

(0.64%), 성남 분당구(0.59%), 군포(0.56%)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13%), 서구(0.11%), 동구(0.07%), 계양구(0.02%)가 올랐다.

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14.3으로 지난주(116.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19.7)보다 소폭 하락한 117.4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13.2에서 이번 주 111.5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4.0)보다 약간 증가한 77.0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매수자가 많이 찾고 있으며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 중”이라며 “만성적인 전세물량 부족과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세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홈플러스·GS리테일, 네이버 장보기 입점

당일배송·새벽배송 가능

유통업체들에 네이버와 힘을 합친다.

홈플러스와 GS리테일이 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이는 '장보기' 서비스에 21일부터 공식 입점해 상품을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네이버와 온라인 사업 제휴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네이버 이용 고객의 상품 검색 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다시 접속해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주요 생필품을 네이버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보기'에서 홈플러스 상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3%,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7%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생필품 구매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기존 온라인몰에서는 신선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홈플러스 입점으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입점사 중 최대 규모로 자사 온라인몰 신선·가공식품, 생활용품, 패션, 가전 등 2만3000여종 전 제품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 점포에서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택배 배송 업체와 달리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품을 받을 수 있



이커머스 공세에 고전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국내 최대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와 손잡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반격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네이버가 신규 론칭하는 장보기 서비스에 21일 공식 입점해 네이버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네이버와 온라인사업 제휴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는 배송 시간 선택 서비스도 있다. 신선식품에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상품을 100% 교환·환불해주는 신선 A/S 제도를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 고객을 위한 별도 혜택도 있다. 전월 누적 구매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객에게는 매일 할인 쿠폰 2장을 준다.

홈플러스는 이번 장보기 서비스 제휴로 첫 해에만 연간 160만명 온라인 고객을 모으고 10% 이상 추가 매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가입돼 있는 유럽 최대 유통 연합 EMD(European Marketing Distribution AG)를 통해 유럽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이고, 신선식품 콜드체인 배송 서비스 강화하는 등 네이버와 홈플러스 양사간 제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고 신선하게 상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정제마진 5주 만에 플러스...더딘 상승세에 정유사 '시름'

“공장 돌려 제품 생산할수록 손해 난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5주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더딘 회복세에 정유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0.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셋째주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5주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달 셋째주 -0.5달러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이달 첫째주 -0.3달러로 2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체 석유제품의 마진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며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특히 지난주 휘발유 정제마진이 역대 외 원유정제공장 설타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통상 국내 정유업체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밑돌면 정유사가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의미다.

문제는 하반기 석유 수요 역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고객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항공유 수요 부진을 반영해 올해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일당 81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4월 항공기 운항거리는 전년 대비 80% 감소했으며 7월에도 감소폭은 여전히 6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했다. 석유수출 국가(OPEC) 역시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 감소폭을 상향조정했다.

서선욱 기자

긴 장마에 건조기용 섬유유연제 매출 '쑥'

7월 매출 전년 비해 276%↑



20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르샤트라 1802 드라이시트'는 내부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3% 매출 성장을 보였다.

의류건조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건조기용 섬유유연제 역시 매출이 늘고 있다.

특히 역대 최장 장마가 맞물리며 건조기 사용량이 증가해 섬유유연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르샤트라 1802 드라이시트'는 내부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2분기(4~6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3% 매출 성장을 보였다. 특히 장마가 지속된 7월에는 276%의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긴 장마철이 지속돼 건조기 사용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건조기용 섬유유연제는 일반적으로 시트형으로 만들어져 사용이 간편하다. 섬유유연제의 마찰을 줄여줘

정전기 방지 및 섬유가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을 준다.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지속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르샤트라 1802 드라이시트는 프랑스 프로방스 '르샤트라' 농장에서 수확한 100% 내추럴 허브에센셜 오일을 함유했다. 깊고 은은한 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위생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며 관련 생활용품 또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8월에도 1~15일 매출이 전년보다 10% 성장했고, 앞으로도 사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